



12월
셋째 주



가정예배

주의 성전을 바라며 기도하라

찬양해요

찬송가 212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열왕기상 8:27-30

-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 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의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이해하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누추한 땅에 계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더 높은 곳에 모셔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27절).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 없이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좀 더 생각해보기

- 1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이오리이까
- 2 솔로몬은 그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29절)?
주의 종이 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 3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30절)?

4 29, 30절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금의 교회로 이해하고 교회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가족 공동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세요. 믿음의 형제들과 나라를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